



교역조건 악화로

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 둔화

채원영 연구원

■ 2012년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(GNI) 증가율은 전기 대비 0.2%에 그쳐 2010년 4분기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는데, 이는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때문임.

- 자동차와 석유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4.2% 증가하였으나 교역조건 악화로 1분기 실질무역 손실이 18조 4,000억 원을 기록하였음.
 - 1분기 국제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였지만, 반도체,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은 악화되었음.
- 최근 두바이유 가격이 100달러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지만, 주요 수출 대상국인 EU, 중국 등의 교역량이 글로벌 금융 불안의 영향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2분기 실질 GNI 개선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.

■ 총저축률은 31.3%로 전분기보다 1.2%p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종소비지출이 2.2% 증가하였고,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0.4% 증가하였기 때문임.

- 최종소비지출의 증가는 정부의 건강보험급여 지출 증가폭 확대로 정부소비지출이 5.4% 증가한데 기인함.

■ 1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0.9%, 전년동기대비 2.8% 각각 증가하였음.

- 민간소비는 내구재 소비 증가로 1.0% 증가,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,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 증가로 10.3% 증가, 그리고 재화수출과 재화수입은 각각 4.2%, 4.0% 증가하였음.
-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은 전기 대비 2.0% 성장하였으며 건설업은 1.7% 감소, 서비스업은 1.1% 증가하였음.

(한국은행 보도자료 외)